

最近의 經濟動向과
通貨信用政策

2001. 7. 18

韓國銀行 總裁 全哲煥

차 례

I. 最近의 經濟動向 및 展望	1
1. 實物經濟	1
2. 金融市場	6
3. 外換市場	11
II. 通貨信用政策 運用方向	12
1. 物價 및 景氣狀況 등을 綜合적으로 감안한 通貨信用 政策 運用	12
2. 企業金融의 圓滑化 및 金融市場 安定 圖謀	14
3. 國際金融市場 不安에 능동적으로 對處	16

I. 最近의 經濟動向 및 展望

1. 實物經濟

(實物經濟活動의 鈍化勢 지속, 4/4분기경 完만한 回復勢 예상)

□ 실물경제는 작년 9월 이후의 둔화추세가 지속

- 1/4분기중 GDP성장률(전기대비)이 지난해 4/4분기의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0.3%)로 반전하는 등 경기둔화속도가 완만해 졌으나

4월 이후 산업생산이 다시 부진해지고* 재고증가율도 상승

* 그 동안 산업생산 증가를 주도하여 온 「반도체 및 사무회계용기계」의 생산증가율이 크게 하락(1/4분기 21.7% → 4월 7.7% → 5월 1.0%)하여 전체산업생산의 둔화요인으로 작용

- 消費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設備投資 및 輸出(물량 기준)이 계속 부진

→ GDP 成長率은 상반기중 3.5% 내외에 머물 전망

주요 생산 및 수요관련 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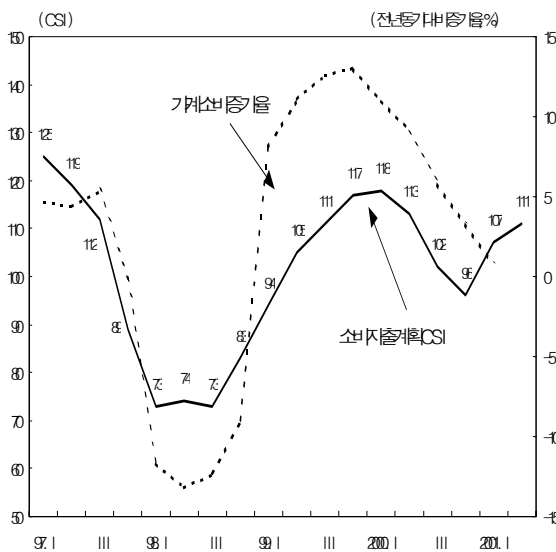
	2000					2001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GDP 성장률	8.8	12.6 (1.6)	9.7 (1.6)	9.2 (2.4)	4.6 (-0.4)	3.7 (0.3)	-	-	-	-	-
산업생산	16.8	23.6 (2.9)	18.4 (1.7)	19.8 (6.1)	7.6 (-3.2)	5.0 (0.6)	0.1 (1.0)	8.8 (0.9)	6.4 (0.4)	5.6 (-1.4)	2.3 (-0.1)
제조업재고	16.4	10.5	9.7	13.5	16.4	15.3	16.5	15.2	15.2	17.3	18.7
도소매판매액	9.8	15.1	13.3	8.0	3.9	2.5	2.2	1.6	3.6	4.0	4.9
설비투자추계	30.0	59.3	34.8	29.5	5.7	-6.2	-9.2	-4.8	-5.0	-5.8	-6.6
수출물량	16.0	23.2	15.3	21.0	7.1	6.9	7.2	9.9	3.9	-4.8	-2.3

주: 1) ()내는 전기대비(계절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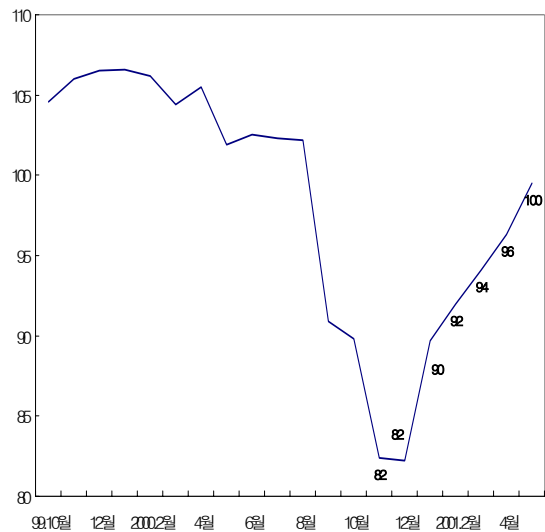
□ 한편 각종 서베이 결과 消費心理는 호전되는 모습

- 소비자기대지수(통계청)가 5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가계소비계획 CSI도 2/4분기중 111로 전분기(1/4분기 107)에 이어 기준치(100)를 상회

소비지출계획CSI 추이



소비자기대지수¹⁾ 추이



주: 1)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향후 6개월간 소비(지출)를 늘리겠다는 가구수가 줄어졌다는 가구수를 상회

□ 최근 들어 기업들은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이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를 다소 불투명하게 전망

- 금년 3월 100을 상회한 이후 상승하여 오던 전경련의 종합경기 BSI가 6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

전경련 종합경기 BSI 추이

	2000.3월	9월	10월	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종합경기 BSI	131	105	92	68	62.7	83.0	102.4	107.7	115.5	114.3	104.6

□ 국내경기는 당분간 둔화 추세가 이어지겠으나 4/4분기에는 수출 및 내수가 늘어나면서 GDP 성장률이 5%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금년 하반기 성장률은 4.1%, 연간 성장률은 3.8% 내외로 전망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01.1/4 ¹⁾	2/4	3/4	4/4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3.7	3.3	3.0	5.1	3.5	4.1	3.8
민간소비	0.9	1.1	2.3	3.0	1.0	2.7	1.8
설비투자	-7.9	-5.3	1.1	11.8	-6.6	6.1	-0.5
건설투자	1.4	2.9	3.5	3.9	2.3	3.7	3.1
상품수출	8.5	3.4	2.9	7.3	5.8	5.1	5.5
상품수입	-1.0	-6.8	-2.6	6.7	-3.9	2.1	-0.9

주 : 1) 실적치

(物價는 높은 上昇勢 시현, 3/4분기 이후 인플레 압력 완화 예상)

□ 금년 상반기중 消費者物價(전년동기대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高油價와 公共料金 인상의 영향이 지속된 데다 금년 들어서도 醫保 酬價 등 일부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환율상승, 가품의 영향 등으로 4.7% 상승

*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한 비율은 2000년중 43%, 금년 상반기중 38%에 달하여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

소비자물가지수 동락률¹⁾ 추이

(전기대비, %)

	2000					2001				
	1/4	2/4	3/4	4/4	연평균	1/4	2/4	상반	5월	6월
소비자물가	0.3 (1.5)	0.1 (1.4)	1.7 (3.2)	0.7 (2.8)	2.3	1.6 (4.2)	1.1 (5.3)	2.6 (4.7)	0.0 (5.4)	0.3 (5.2)
농축수산물	1.1	-3.0	3.6	-2.3	2.0	2.1	2.4	2.0	-0.6	0.9 (5.9)
공업제품	-0.6	-0.3	1.6	1.5	1.6	0.9	0.6	1.9	0.2	0.1 (3.9)
서비스	1.5	0.6	2.0	0.7	2.9	2.5	0.6	3.3	0.1	0.2 (5.9)
(집 체)	0.0	0.5	0.6	0.6	(-0.5)	1.0	1.6	2.0	0.5	0.8 (4.4)
(공공서비스)	1.3	2.1	3.6	3.1	(7.1)	4.0	0.6	5.9	0.0	0.1 (11.7)
(개인서비스)	0.9	1.2	0.1	0.2	(2.0)	1.3	1.3	2.1	0.1	0.0 (3.0)
근원 CPI ²⁾	0.4 (0.8)	0.6 (1.4)	1.1 (2.4)	0.7 (2.8)	1.8	1.7 (4.2)	1.0 (4.6)	2.6 (4.4)	0.3 (4.7)	0.1 (4.6)

주 : 1) ()내는 전년동기대비 2)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 하반기에는 需要面에서의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데다 원화환율과 원자재가격의 안정,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비용측면에서의 상승 압력도 크게 완화되어 3/4분기에는 4%대, 4/4분기에 3%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금년 하반기중 4.1%, 연간 4.4% 상승할 전망

(經常收支는 黒字基調 유지)

□ 經常收支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 등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금년 1~5월중 60억 달러의 흑자 기록(2000년 1~5월중 24억 달러 흑자)

○ 6월중 輸出入差는 15억 달러 흑자

경상수지 및 수출입 추이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2000					2001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6월
경 상 수 지	13.4	27.3	36.5	33.2	110.4	30.7	5.9	23.0	..
(상품수지)	24.4	45.9	54.1	41.6	166.0	34.6	13.1	22.4	..
(서비스수지)	-9.2	-8.1	-12.2	-10.2	-39.7	-5.5	-1.1	-2.6	..
(소득수지)	-4.5	-12.3	-6.2	1.0	-22.0	0.5	-6.6	3.7	..
수 출 입 차	4.4	36.0	39.7	37.7	117.9	20.7	9.4	19.9	14.9
수출증가율	29.8	21.5	26.5	6.1	19.9	2.1	-10.2	-7.7	-13.4
수입증가율	51.9	38.4	35.8	16.2	34.0	-2.0	-16.1	-13.3	-11.1

□ 수출입의 부진은 당분간 계속되다가 4/4분기 들어서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하반기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71억 달러)에 비해 다소 축소된 59억 달러 (연간전체로는 130억 달러) 기록 전망

2. 金融市場

(市中金利는 下向 安定勢 維持)

□ 채권시장금리는 경기회복 지연 및 물가오름세 둔화 전망, 채권수급사정 호전 기대*, 콜금리 목표수준 인하(7월 5일)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금년 1~5월의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14.2조원, GDP대비 2.7%)를 기록하고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으로 추가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고채와 예보채 발행물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국고채유통수익률은 7월 13일 현재 5.79%로서 금년 들어 최고점이었던 4월 26일(6.93%)에 비해 1.14%p 하락하였으며 회사채유통수익률도 7월 13일 현재 7.03%로 하락

○ 長短期金利隔差(국고채수익률 - 콜금리)는 6월 이후 100bp 내외에서 변동

주요 시장금리 추이

	(기말기준, 연%, %p)										
	2000.10월	11월	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3	
국고채수익률 ¹⁾ (A)	7.64	7.16	6.70	5.68	5.43	6.31	6.80	6.17	5.93	5.79	
회사채수익률 ^{1) 2)}	8.59	8.35	8.13	7.38	6.77	7.69	8.05	7.37	7.10	7.03	
콜금리 ³⁾ (B)	5.37	5.31	6.01	5.27	5.05	4.94	5.01	5.00	5.03	4.77	
CP ⁴⁾	7.24	7.26	7.26	6.66	6.20	6.06	6.19	5.98	5.69	5.53	
A - B	2.27	1.85	0.69	0.41	0.38	1.37	1.79	1.17	0.90	1.02	

주: 1) 3년물 기준, 2) AA- 기준, 3) 1일물 기준, 4) 91일물

-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 문제 처리의 진전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심리가 점차 해소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회사채 및 CP를 중심으로 계속 낮아지는 모습
 - 특히 투자적격중 최하위등급인 BBB- 등급 회사채의 금리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축소
 - CP의 등급별 금리 격차도 완만하나마 축소

會社債 및 CP의 信用等級別 金利隔差 推移

	2000.12말	2001.1말	2말	3말	4말	5말	6말
	(%p)						
회사채 ¹⁾							
BBB+	1.43	1.43	1.43	1.38	1.35	1.34	1.37
BBB-	3.69	4.18	5.03	4.76	4.69	4.28	4.11
CP ²⁾							
A2	0.18	0.15	0.13	0.13	0.13	0.12	0.12
A3	0.88	0.84	0.80	0.77	0.75	0.74	0.72
B	4.35	4.32	4.25	4.23	4.21	4.21	4.21

주: 1) 우량기준물(AA-)과의 금리격차 2) 우량기준물(A1)과의 금리격차

- 은행 여수신금리는 풍부한 시중자금사정 및 기업자금수요 둔화 등을 반영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7월 5일 콜금리 인하 후 각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인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은행 여수신금리 추이¹⁾

	2000.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연%, %p)					
대출평균금리(A)	8.41	8.45	8.34	8.26	8.10	7.99
수신평균금리(B)	5.95	5.88	5.43	5.22	5.11	5.11
A - B	2.46	2.57	2.91	3.04	2.99	2.88

주: 1) 신규취급액 기준

(銀行預金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投信社 受信도 회복)

- 지난해에 이어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은행계정 수신이 27조 4천억원 증가
 - 기간별로는 1년 이상 정기예금이 감소한 반면 CD, RP, 표지어음 등 단기시장성 수신이 큰 폭 증가

- 지난해 크게 감소하였던 투신사 수신은 금년 들어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진정되면서 회복세
 - 주식투자신탁이 감소(-5조 1천억원)하였으나 MMF(+5조 6천억원)와 채권투자신탁(+8조 5천억원)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투신사 전체수신은 상반기중 9조원 증가

- 그러나 금융기관 수신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기관 자금운용상의 애로는 당분간 지속 예상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증감액, 억원)						
	2000 ¹⁾	2001.1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은행계정	76,662	1,996	36,835	80,229	59,367	79,330	273,685
(1년이상정기예금)	42,805	43,567	-13,214	-2,761	-16,026	-1,310	-13,935
(CD+RP+표지어음)	9,260	10,933	899	8,967	26,032	16,513	75,736
은행신탁	-35,135	-619	5,518	-8,807	-15,074	-3,637	7,544
투신사	-41,800	74,336	37,675	-129,179	31,193	9,612	90,275
(채권투자신탁)	-41,042	8,550	18,991	7,919	3,163	9,792	85,188
(MMF)	3,560	97,307	33,521	-125,961	32,397	-15,527	56,218
(주식투자신탁) ²⁾	-4,318	-31,521	-14,836	-11,137	-4,367	15,347	-51,130
채신예금 ³⁾	6,318	8,363	19,444	2,689	3,077	5,988	45,118

주 : 1) 월평균 2) 혼합투자신탁포함 3) 예수금 및 RP

(企業資金의 需給은 대체로 원활)

□ 市中流動性이 비교적 풍부한 가운데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회사채의 순발행 기조가 이어지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은행대출도 증가세 지속

○ Primary CBO와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등을 제외한 일반공모채도 순발행

- 금년 상반기중 회사채 순발행액 11조 5천억원 가운데 순수 일반공모채는 전체의 35%인 4조원

○ 中小企業 대출은 우량거래처에 대한 대출경쟁의 확산으로 상반기중 7조 3천억원 늘어난 반면

大企業 대출은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수요 저조와 반기결산을 앞두고 기업들이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단기대출을 대거 상환함에 따라 감소(상반기중 -2,860억원)

기업자금조달 추이

(증감액 기준, 억원)

	2000년 (월평균)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은행 기업대출 ¹⁾	19,545	38,876	-7,376	1,253	22,774	23,443	-8,734	70,236
대기업	6,042	30,831	-6,342	-3,447	4,735	-1,963	-26,674	-2,860
중소기업	13,504	8,045	-1,034	4,700	18,039	25,406	17,940	73,096
회사채발행(순) ²⁾	-7,108	8,687	33,529	13,874	16,816	13,863	27,874	114,643
	(-13,197)	(1,127)	(12,915)	(5,427)	(3,796)	(9,923)	(7,291)	(40,479)
CP 발행(순)	-591	64,352	-626	5,725	14,477	4,201	-16,788	71,341

주: 1) 신탁대출 및 CLO 포함, 가계 및 공공기관 대출 제외, 부실채권정리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2)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내는 Primary CBO,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채무조정 관련 전환사채 등 제외

□ 이러한 기업금융 여건을 반영하여 3월 이후 어음부도율이 낮아지고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當座貸出限度 消盡率도 하락세

○ 아울러 기업자금사정 BSI도 4월 이후 기준치(100)를 상회

주요 기업자금사정 지표 추이

(%, 個)

	2000.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당좌대출한도소진율 ¹⁾	18.6	17.7	17.6	17.6	17.8	15.8	14.5
전국어음부도율 ²⁾	0.27	0.32	0.31	0.34	0.28	0.21	..
부도업체수 ³⁾	683 (27)	532 (23)	497 (21)	496 (19)	453 (19)	444 (18)	..
전경련 자금사정BSI	85	85	94	100	107	105	102

주: 1) 시중은행 기준, 월말 기준(단, 2000.12월은 기업의 부채감축 등을 위한 일시적인 당좌대출 감소요인을 감안하여 25일 기준 수치 인용)

2) 전자결제액 조정후(금액기준) 3) ()내는 일평균 부도업체수

3. 外換市場

(원貨 換率은 1,300원 전후에서 안정적인 움직임)

□ 원貨의 대미달러 換率은 1,300원 전후에서 등락

- 7월 들어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시장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국제외환시장의 불안이 증대되고 국내에서도 추가하락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원화가 다소 상승하는 모습
- 그러나 우리 경제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외환수급면에서도 經常收支 흑자 지속 및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유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향후 환율은 대체로 안정 추세를 유지할 전망

원貨 및 엔貨 換率 推移
(기말종가 기준)

	2000.12	2001.1	2월	3월	4월	5월	6월	7.13
원/달러	1,264.50	1,259.00	1,250.80	1,327.50	1,319.70	1,282.70	1,297.50	1,308.00
	(-10.0)	(+0.4)	(+1.1)	(-4.7)	(-4.2)	(-1.4)	(-2.5)	(-3.3)
엔/달러 ¹⁾	114.41	116.52	117.35	126.18	123.60	119.19	124.72	124.87
	(-10.6)	(-1.8)	(-2.5)	(-9.3)	(-7.4)	(-4.0)	(-8.3)	(-8.4)
원/100엔 ²⁾	1,101.78	1,081.62	1,072.73	1,057.07	1,061.51	1,076.54	1,044.27	1,053.97
	(+0.9)	(+1.9)	(+2.7)	(+4.2)	(+3.8)	(+2.3)	(+5.5)	(+4.5)

주: 1) 뉴욕종가 기준

2)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3) ()내는 전년말대비 절상(+), 절하(-)율(%)

□ 한편 금년 6월말 현재 外換保有額은 942.6억 달러로 1년 이내에 갇아야 할 대외채무의 1.6배, 월간 경상외환지급액의 6배 수준

외환보유액 추이
(기말 기준)

	1997	1998	1999	2000	2001.1	3월	5월	6월
외환보유액	88.7	485.1	740.5	962.0	954.2	944.4	936.3	942.6

(억달러)

Ⅲ. 通貨信用政策 運用方向

1. 物價 및 景氣狀況 등을 綜合적으로 감안한 通貨信用政策 運用

- 98년 한은법의 전면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표는 “物價安定”으로 단일화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년 물가목표를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物價安定 目標制 (inflation targeting)가 도입되었음
 - 따라서 한국은행은 法에 의해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最優先 目標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은행은 경기상황의 변화도 중시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7월 5일 한국은행은 콜금리 목표를 25bp 인하하였음
- 금년중 물가상승률이 목표(근원인플레이션 기준 $3\pm 1\%p$)의 상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향후 물가상승압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경기 회복과 관련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정책효과의 시차를 감안, 콜금리 인하를 결정하였음

- 특히 금년도 물가상승요인은 통화정책에 의해 제어하기 어려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환율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며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콜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이와 같은 정책결정 사례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채택하고 있는 EU,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금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에 대처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음
- 한편 금번 콜금리 인하 조치 이후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이어 금융기관들의 수신 및 여신 금리가 동반인하되고 있는 등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느 때보다 원활히 작동하고 있음
-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여건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물경제활동 및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시의성 있게 대처해 나갈 예정
-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물가상승률(4.7%)은 공공요금 인상에도 크게 기인했던 만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의 자체흡수 등 미시적 차원의 물가관리 대책이 강력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2. 企業金融의 圓滑化 및 金融市場 安定 圖謀

- 최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금융구조의 취약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일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자금수요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 아울러 금융자금이 기업부문으로 최대한 유입될 수 있도록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

總額貸出限度 및 金利 變更 推移

(억원, 연리%)

	98.3~	98.9~	98.12~	99.8~	2000.12~	2001.1~	2001.3~
한도	56,000 (12,543)	76,000 (17,543)	76,000 (19,543)	76,000 (21,543)	76,000 (26,543)	96,000 (26,543)	96,000 (26,743)
금리	5	3	3	3	3	3	3

주: 1) ()내는 지점별 총액한도

- 이와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는 새로운 수출 유망분야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無體物* 수출에 대해서도 貿易金融 지원이 가능하도록 무역금융 용자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앞으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어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 소프트웨어, 영상물(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企業購買資金 貸出制度* 및 電子方式 外上賣出債權 擔保貸出制度**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

* 어음사용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자금을 용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2000년 5월 도입한 제도

** 1~30대 계열 대기업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등의 제약으로 기업구매 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제도로서 2001년 2월 도입·시행

○ 7월 2일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자금을 취급한 은행에 지원하는 총액한도자금을 5,000억원 증액(2조 5천억원→3조원)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제도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

○ 금년 6월말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전년 6월말에 비해 6조 8천억원 늘어난 반면 상업어음할인 실적은 같은 기간중 3조 1천억원 줄어 들어 現金決濟가 어음결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기업간 상거래 관련 대출 추이¹⁾

	(억원)						
	2000.6월	9월	12월	2001.3월	4월	5월	6월 ³⁾
기업구매자금대출	651	13,787	33,594	46,271	50,812	57,455	63,931 (63,280)
전자방식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	-	-	2,258	2,940	3,708	4,675 (4,675)
계	651	13,787	33,594	48,529	53,752	61,163	68,606 (67,955)
상업어음할인 ²⁾	184,537	186,542	193,101	155,524	150,646	152,206	153,969 (△30,568)

주: 1) 말잔기준 2) 중소기업 기준 3) ()내는 2000년 6월말 대비 증감액

3. 國際金融市場 不安에 능동적으로 對處

□ 세계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이 최근 다시 높아지는 모습

○ 그 동안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 등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이 채무만기 연장 및 IMF 자금지원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는 듯 하였으나

7월 10일을 전후하여 아르헨티나의 채무상환불능(default)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금융불안을 촉발

→ 아르헨티나 위기의 여파로 브라질, 칠레 등 隣接國 통화 가치가 하락

→ 이를 반영하여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달아 하향 조정*

* 7.11일 Fitch社가 B+에서 B-로 2단계 낮춘 데 이어, 7.12일 S&P社가 B에서 B-로 1단계, 7.13일 Moody's社가 "B2"에서 "B3"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

주요 중남미국가의 대미달러 환율 및 주가 추이

	2001.6말	7.9	7.10	7.11	7.12	7.13	
아르헨티나 주가	402.25	369.81 ¹⁾	347.11	339.36	311.65	329.08	
브 라 질	주가	14,559.8	13,906.8 ¹⁾	13,569.8	13,811.8	13,916.0	14,078.5
	환율(레알)	2.3105	2.4575	2.4915	2.5015	2.5530	2.5785
칠 레	주가	5,390.85	5,446.83	5,449.50	5,417.76	5,379.03	5,366.56
	환율(페소)	631.80	642.50	651.35	664.15	665.15	668.45
멕 시 코	주가	6,666.17	6,709.13	6,713.04	6,564.14	6,470.88	6,452.12
	환율(페소)	9.041	9.105	9.145	9.2625	9.3600	9.3550

주 : 1) 7.6일 주가(7.9일은 휴장)

신흥시장국 국제 加算金利 추이

(basis point)

	2000말	2001.5말	6말	7.9	10	11	12	13	7.9일 對比
아르헨티나(2009)	811	1,093	1,193	1,295	1,351	1,526	1,972	1,866	+571
브 라 질(2008)	609	685	650	729	738	890	994	1,179	+450
터 어 키(2010)	837	878	892	974	1,001	1,124	1,182	1,170	+196
인도네시아(2006)	763	825	825	825	825	825	825	825	—
한 국(2008)	235	131	141	162	155	155	160	158	-4
말레이시아(2009)	223	174	211	235	235	245	252	250	+15
신흥시장국 평균 ¹⁾	852	854	807	852	860	912	961	966	+114

주 : 1)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자료 : Salomon Smith Barney

- 우리나라의 경우 중남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으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IMF가 “국제자본시장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금융위기가 다른 신흥국가군에게 파급될 가능성을 경고한 데다 신흥시장에 대한 리스크평가가 전반적으로 엄격화됨에 따라 간접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태진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우리나라의 金融不安國家에 대한 危險露出

	수출입 비중(%) (통관기준, 2001.1~5)		해외직접투자 (억달러, 2001.5말)	금융exposure ¹⁾ (억달러, 2001.5말)
	수출	수입		
아르헨티나	0.2	0.1	1.1	1.3
브라질	1.4	0.6	2.0	4.0
터어키	0.4	0.1	0.7	1.1

주 : 1)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출금, 유가증권투자, 매입외환 등

- 다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외환보유액의 꾸준한 확충으로 대외지급 능력이 월등히 개선되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은 우리나라와 여타 신흥시장국을 어느 정도 차별*하는 경향

* 예를 들어 신흥시장국 금융불안이 재연된 7.9일 이후 우리나라 외평채 가산금리는 4bp 하락(연중으로는 77bp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와 신용등급이 같은 말레이시아 국채의 가산금리는 15bp 상승(연중으로는 27bp 상승)하였으며, 현재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칠레·체코 등의 국채 가산금리보다 낮은 수준

○ 또한 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치 등으로 외환수급사정도 계속 원활할 것으로 예상

□ 해외여건이 불안해질수록 對內外 不均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한국은행으로는 海外衝擊에 의한 금리, 환율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通貨政策과 換率政策을 조화적으로 운용할 것임

○ 특히 7월 5일 콜금리 인하 조치 이후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금리 및 자금흐름의 善循環 구조가 중남미 경제위기의 여파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임

<참고> 주요 新興市場國 外換保有額 推移

	1999말 (A)	2000말 (B)	2001.7.15 ¹⁾ (C)	(억달러)	
				증감 C-A	C-B
한 국	740.5	962.0	966.1	+225.6	+4.1
말레이시아	306.5	295.8	248.9	-57.6	-46.9
아르헨티나	262.7	251.5	204.6	-58.1	-46.9
브 라 질	349.5	325.7	373.0	+23.5	+47.3
터 어 키	235.2	201.2	211.0	-24.2	+9.8
인도네시아	265.9	226.9	285.9	+20.0	+59.0

주 : 1) 말레이시아·터어키·인도네시아는 5월말, 아르헨티나는 4월말, 브라질은 6월말 수치임